

5·18재단, 장학금 5600만원 전달

5·18기념재단(이사장 윤광장·사진)은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학생 78명에게 5천6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5·18기념재단은 전국 38개 시민·사회·교육단체의 추천을 받아 고등학생 42명과 대학생 36명을 장학생으로 선발, 이들에게 각각 50만원과 100만원의 장학금을 19일까지 전달했다.

한편 5·18기념재단은 지난 1998년부터 11년째 장학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1천82명의 학생에게 장학금 6억745만원을 지급했다. /이충형기자 golee@kwangju.co.kr



“日 우토로 동포에 보금자리”

인혁당 유족들, 기금 5천만원 쾌척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의 유가족들이 일제시대 비행장 건설에 강제동원된 일본내 조선인 마을인 교토(京都) 우지(宇治) 우토로 동포들의 거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으로 5천만원을 내었다.

19일 지구총동포청년연대(KIN)에 따르면 인혁당 사건 유가족들은 상하수도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60여 년을 살아온 조선인들의 애환을 듣고 우토로 살리기에 동참하기로 하고 5천만 원을 쾌척했다.

기부금 전달식은 21일 오후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우토로국제대책회의(www.utoro.net) 주최로 열릴 예정이다. 우토로 동포들의 역사와 거주권을 지키기 위한 운동에는 지금까지 수 십만 명의 국민과 재일동포,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들이 동참했고, 한국정부도 올해 3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거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직 7억여 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암 투병 이해인 수녀 ‘사모곡’

10번째 시집 ‘엄마’ 출간

얼마 전 암 수술을 받고 투병 중인 시인 이해인(63) 수녀가 지난해 세상을 떠난 어머니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담은 시집 ‘엄마’(샘터 펴냄)를 출간했다.

올해로 수도 생활 40년, 시인 생활 30년을 맞은 수녀가 열 번째로 내놓은 이번 시집에는 지난해 9월 어머니 김순옥 여사가 작고한 이후 써내려간 사모곡 60여 편과, 이전에 어머니를 소재로 썼던 동시 20여 편이 수록됐다. 시집 속에는 수녀와 어머니가 주고 받은 편지와 생전 모습을 담은 사진, 어머니가 손수 만들어 선물한 도장집, 꽃골무 등의 사진도 애뜻한 사연과 함께 실렸다.

지난달 암 진단 후 대수술을 받은 수녀는 현재 부산 성 베네딕도 수녀회에서 외부인과의 만남은 물론 전화 통화나 이메일 교환도 제한한 채 항암치료를 전념하고 있다. 180쪽, 8천500원.



중 배우 리빙빙, 한국문화 홍보대사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중국 배우 리빙빙(李冰冰·32·사진)을 중국내 한국문화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리빙빙은 일본 내 중국관련 인터넷사이트(searchchina.com)에서 아시아 인기 캐릭터 9위에 선정되는 등 중국을 넘어 아시아에서 주목받고 있는 여배우로 이번 베이징올림픽에서 성화 봉송 주자로 참여했다. 그는 청룡(成龍), 리렌제(李連杰) 등과 함께 출연한 영화 ‘포비든 킹덤’으로 할리우드에 진출하기도 했다.



“봉사 열정이 나를 만학도로 이끌었죠”

■팔순에 목포대 졸업하는 전 태 옥 씨

난치병 민간요법으로 완치 후 생약 공부 몰두

“이렇게 살아 있는 것 자체가 고마운 일이지요.”

올해로 우리 나이 팔순을 맞는 전태옥(79·부산시 강서구)씨는 만학의 기쁨을 이렇게 설명했다. 전씨는 목포대 생약자원학과를 졸업, 오는 22일 목포대 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2008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학사학위를 받는다.

부산 사람이던 전씨가 목포까지 와서 항학열을 불태운 것은 봉사에 대한 열정 때문이었다. 1990년 발가락부터 썩어들어가는 버거씨병(특별성탈지 또는 폐색성혈전혈관염)을 선고받은 전씨는 무릎을 절단해야만 살 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 절망했다.

“이미 예수를 넘긴 나이여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싶지 않았어요. 동아대병원을 퇴원한 뒤 집에서 각종 생약을 이용한 민간요법으로 완치가 됐죠. 그 병에 걸려 신체를 절단하지 않고 저처럼 오래 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전씨는 다시 얻은 삶을 봉사에 바쳤다. 수지침을 배우고, 생약을 연구했다.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마산대에 입학했고, 2년의 공부를 마친 뒤 지난 2006년 목포대 3학년부터 썩어들어가는 버거씨병(특별성탈지 또는 폐색성혈전혈관염)을 선고받은 전씨는 무릎을 절단해야만 살 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 절망했다.



손자·손녀보다도 더 어린 학우들과 공부하는 일도 전씨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쁨이었다. 전씨는 “기숙사나 강의실에서 ‘할아버지 안녕하세요’하면서 공손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며 “늙은 저와 함께 공부해준 학우들이 고마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목포까지 와서 공부를 한다는 전씨의 말에 처음엔 가족들의 반대가

심했다. 그러나 전씨의 진심을 안 가족들도 나중엔 두 손을 들 수 밖에 없었다. 한 달에 한 번쯤은 부인이 목포까지 찾아와 기숙사 생활을 도왔다.

“지금쯤 짐사람이 제가 수지침을 놓고 마사지해주는 것을 가장 좋아해요. 매주 목포대 인근 노인 복지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는 기쁨도 빼놓을 수 없었죠.”

전씨는 1천500회가 넘는 봉사활동으로 무안군·김해시로부터 공로상을 수상했는가 하면, 고려수지침요법학회 등에서 표창장을 받았다. 요즘은 부산에 있는 노인 복지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전씨는 “앞으로도 내 건강이 허락하는 한 대학에서 배운 것을 이용해 노환으로 고통받는 노인들을 위해 봉사할 것”이라며 “살면서 느낀 것은 건강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다”고 말했다.

/정삼필기자 camus@kwangju.co.kr /목포=이상선기자 sslee@

인권위 광주 상담위원 위촉

이정강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장은 20일 오전 10시 광주시 동구 대인동 광주시사무소에서 제하림 청소년회복센터장 등 12명에게 대해 전문상담위원 위촉식을 갖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토지문화관 초청 특강

이승우 조선대 교수(소설가)는 오는 23일 오후 강원도 원주 토지문화관에서 열리는 ‘우리 시대 작가와의 대화’에 초청돼 ‘나의 삶과 소설’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한다.



군사발전 학술 세미나

박기주 조선대 군사학연구소장은 21일 오후 1시 체육대학 3층 세미나실에서 ‘2008 군사발전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군사학과 교육체계 발전방향 및 학생지도와 잠재역량 개발 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는 조선대 한관수 교수와 대전대 박용현 교수가 주제 발표하고 원광대 김태웅 교수, 경남대 이동욱 교수, 인사참모부 홍병희 중령, 인사사령부 박태현 중령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영훈·조효원씨 문학동네 신인상

계간 문학동네는 2008년 ‘문학동네 신인상’에 소설 부문 이영훈(30) 씨, 평론 부문 조효원(27) 씨가 각각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수상작은 소설 ‘거대한 기계’와 평론 ‘문학의 시작, 링컨데를의 끝-김연수 소설과 함께 시작하기’. 시 부문은 당선자를 내지 못했다. 상금은 소설 1천만원, 평론 500만원이며 시상식은 ‘문학동네 소설상’ 시상과 함께 12월 말에 열린다.

‘잉글랜드...’ 우수학술도서

이영석 광주대 외국어학부 교수가 출간한 번역서 ‘잉글랜드 풍경의 형성’(윌리엄 호스킨스 지음, 한길사)이 2008년 대한민국 학술원 추천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다.



‘잉글랜드 풍경의 형성’은 영국사학계에서 역사지리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20세기의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교수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동서양명저 번역사업 지원을 받아 지난해 11월 이 책을 펴냈다. 이 교수의 책이 문화관광체육부 학술원 추천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다. /정삼필기자 camus@kwangju.co.kr

“한국 소개하는 책, 함께 만들어요”

배용준, 흥피 통해 “아이디어 달라” 제안



지난해 MBC TV 드라마 ‘태왕사신기’ 촬영 중 어깨와 무릎 등을 다친 ‘한류스타’ 배용준이 19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이뤄진 어깨 수술의 경과와 근황을 밝혔다. 배용준은 이날 오전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수술은 별 탈 없이 잘 진행됐다”며 “병원에서 며칠 경과를 보다가 퇴원한 후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 우리 가족들에게 편지를 쓸 수 있을 정도로 빠른 회복 단계를 거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관련 “한국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책을 내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내가 아시아 가족들에게 사랑받기 시작하면서부터 많은 분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 방문 루트가 드라마 촬영지에 국한되는 것이 안타까웠다”며 “이 책을 나 혼자만의 힘이 아닌 우리의 힘으로 함께 만들어보자”고 팬들에게 제안했다. 그

리면서 “여러분께서 여행하신 대한민국 곳곳의 아름다움을 나에게 알려 달라. 유연히 들른 허름한 식당의 시골 밥상 등 어떤 정보도 좋으니 마음껏 나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선 얼마간은 webmaster@byj.co.kr로 메일을 보내달라”며 “조만간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건보 광주본부, 소록도 찾아 봉사활동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이병식)와 직장노조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정정문)는 19일 소록도를 방문해 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펴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건보공단 광주본부 제공)

호남대 22일까지 신안서 봉사활동



호남대 사회봉사단(단장 지성환)은 18일 호남대 쌍춘캠퍼스에서 발대식을 갖고 22일까지 5일간 신안군 지도면 선도 일원에서 벽화그리기, 장수 사진 촬영 등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호남대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동창·동문회

- ▲조대부고 20회 동창회(회장 임성기)=20일(수) 오후 7시 현대예식장 정문 건너편 화랑궁 회관. 062-223-7370.
▲광주남중 21회(회장 김영희) 월례회=22일(금) 오후 7시 주일동 국제호텔 위 흥여명가. 062-676-3883.
▲광주 북성중 22회(회장 김경범) 월례회=22일(금) 오후 7시 동해호텔. 062-943-2757, 총무 018-643-9200.
▲광주 북성중 26회(회장 이형선) 월례회=26일(화) 오후 7시 통근소. 062-382-8997.

- ▲백운초교 총동문 및 13회 동문회 월례모임=27일(수) 오후 7시 진월동 빅마켓 옆 취향, 연락사무소 광덕종합건설 010-7471-0219.
▲광주 북성중 28회(회장 윤중철) 월례회=28일(목) 오후 7시 등촌. 062-373-1566.

종친회

- ▲고세 광주 중문회(회장 고석태) 이사회=21일(목) 오후 6시30분 총장로 5가 전가복(엔터시네마 7층). 062-515-8808.
▲동래정씨 광주·전남 종친회(회장 정한영) 이사회=29일(금) 오전 11시 무등고시학원. 011-9615-8567.
▲가락 영암군 임원회(회장 김내규)=26일(화) 오전 10시30분. 011-9473-3719 (사무국장 김윤호).

향우회

- ▲재광 고마 향우회=23일(토) 오후 7시 광산구 운남동 문가네식당. 총무 김기석 011-635-7620.

모임

- ▲재광 춘천중·고등학교 테니스 월례대회=23(토) 오후 3시30분 임동 일신방직코트. 016-652-8040(김대균).

알림

- ▲국제제철협회 광주 서부지부 웃음치료·건강 세미나=20일(수) 오전 10시~11시30분 광주 서구 화정3동 지부 사무실. 062-382-3004, 017-690-8054.
▲광주대 풍수지리학 무료 공개

- 강의=23일(토) 오후 2시~5시 중앙도서관 5층, 책자 무료 제공. 062-670-2161, 011-609-8117.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종합사회복지관 광주이동 가족상담센터 무료 상담=아동 심리적 발달·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미술치료, 언어치료, 자녀양육 상담. 062-264-4370.
▲호남해바라기 아동센터 무료 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및 정신장애 장애인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의료·법률 지원 및 심리 치료 등 원스톱 서비스. 062-232-1375, www.forchild.or.kr
▲푸른복지 문화센터 무료 수강생 모집=흡연선, 리본공예, 웃음치료, 칼라믹스, 종이접기, 댄스스포츠

- 등. 010-9940-1769.
▲자비선원 명상 무료 지도=학생, 주부, 직장인, 마음의 평화를 원하시는 분. 062-228-7701.

부음

- ▲민명회(광주 대신고 교장·전서부교육청 교육장)씨 별세 지선(쌍촌 종로약국 약사)·지경(교사)씨 부친상 배현석(쌍촌 종로약국 약사)씨 부부상=발인 20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2.
▲안병환씨 별세 서기(영남 신북전자고 교사)·영숙·정숙(원주 세브란스병원 교수)씨 부친상 노경선씨 시부상=발인 20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윤홍숙씨 별세 송용석(서울지방방방무청)·주석·인석(보성군청)·명석(교육과학기술부)·미자·묘숙(은행원)씨 모친상 양희만·영숙씨 부부상=발인 20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김수열씨 별세 경식(미래에셋

- 생명)·영식·승식·해경씨 부친상 임윤택(평태가구)씨 부부상=발인 20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 062-231-8905.
▲임채규씨 별세 영호(사업·전고흥군 기획실장)·창호(고흥군 수산과장)·영률(광주시 기후변화대응과장)·영주(농업경영인)·남진(광주시 예산담당관)씨 부친상 류제표(광주테크노파크 행정지원실장)씨 부부상=발인 21일(목) 고흥 우주장례식장 1분향소. 010-2637-6430.
▲손두석씨 별세 영지(간진새마을협의회 사무국장)·정선(광주교대 교수)·정일씨 부친상 철(서울경제신문 경제부 기자)씨 조부상 김순영(광주 신광중 교사)씨 시부상=발인 21일(목) 가화동 그린장례식장 7분향소. 062-250-4407.
▲김순임씨 별세 박재규(전 함평군청)·재홍(충동원중기 대표)·준선(북포경찰서 안좌파출소장)씨 모친상 이정남(광주시의회 의원)씨 부부상=발인 21일(목) 한평 성심병원장례식장. 011-9621-7600.

- ▲선중환씨 별세 화진·수진·미진·은진·향진씨 부친상 박성우·장갑천·김금용씨 부부상=발인 21일(목) 학동 금호장례식장 201호. 062-227-4000.
▲김순옥씨 별세 구성옥(보공혜미리마트 경영지원본부장 전무)씨 모친상=발인 21일(목) 경남 거창 장례식장. 016-224-5936.
▲박창식씨 별세 만열·만석(개인택시)·귀순씨 부친상 최석현(개인사업)씨 부부상=발인 21일(목) 송정장례식장 2호실. 062-941-7101.
▲최만순씨 별세 강태석·오석씨 모친상 정병열·조윤근·서영환·이연승씨 부부상=발인 21일(목) 우산동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광주에서 30분 아름다운 정계공원 가족납골묘 특별분양 문의 (062) 222-0201